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0월 15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정부를 위한 유럽식 여성복지 해법 제시

유럽 각국 복지 전문가들 한자리 모여 차기정부의 복지와 여성 정책 논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0월 15일(월)

보도 날짜 : 2012년 10월 15일(월)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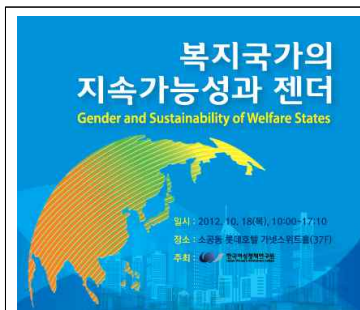
내용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 신 희

(연락처: 02-3156-7225, 이메일: shkim@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18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스위트홀에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젠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세계 복지제도의 바로미터인 유럽 주요복지국가(△북유럽圏-노르웨이/스웨덴, △남유럽圏-스페인/그리스)의 여성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여성 정책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 심포지움 개요



- 주제 :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젠더
- 일시 : 2012. 10. 18.(목) 10:00~17:10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스위트홀(37F)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18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스위트홀에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젠더’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행사 개요>

-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복지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돌봄, 여성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현안과 맞물려 주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 이번 심포지움은 대표적인 복지선진 사례인 유럽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정책 입안 및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복지국가 도약을 준비하는 차기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특히, 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복지정책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남유럽 국가들(스페인, 그리스)과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는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적합한 젠더적 관점의 복지정책 지향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이번 심포지움의 해외 초청인사들은 복지 선진국가들의 양성 평등정책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관련 이슈부터 가족과 돌봄 노동, 여성 이민 등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아니 홀 노르웨이 아동 평등 및 사회통합 가족평등부 국장이 “노르웨이 50년간의 여성복지정책”을, 아니타 니베리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가 “스웨덴 지난 50년간의 양성평등 정책”을, 홀리오 아날도 가르시아 히메네즈 스페인 보건 평등부 정부자문위원이 “스페인의 성차별 폭력해결을 위한 제도적 현황”을, 디오도로스 파파도폴로스 영국 바스대학교 사회정책학 교수가 “그리스 정치경제위기의 젠더적 측면”을 주제로 발표한다.

○ 토론자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여성정책 방향을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한 최금숙 원장은 “2008년부터 대가족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의 기본을 가족에 두는가 아니면 개인에 두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인 이상 가족을 기본으로 한다면 1인 가구(특히, 여성 1인 가구)는 복지정책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번 행사가 차기정부가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시대과제인 복지와 여성정책의 지향점을 점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붙임 1. 해외 초청발표자 소개

- **아니 홀(Arni Hole) 노르웨이 아동 평등 및 사회통합 가족평등부 국장**
여성, 아동, 가족 정책을 포함하여 인종, 민족등 사회 약자 평등문제에 관한 정책 전문가이다. 현재 노르웨이 아동평등 및 사회통합 가족평등부 국장에 재임중이며, UN, EU/유럽경제지역(EEA),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북유럽각료회의(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등에서 이들 정책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아니타 뉘베리(Anita Nyberg)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문제의 전문가이다. 현재 '고용 및 젠더 평등 문제(Employment and Gender Equality Issues)'에 대한 '유럽 전문가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Experts)'와 '젠더, 사회통합, 건강 및 장기 요양(Gender, Social Inclusion, Health and Long TermCare)'에 대한 유럽 전문가 네트워크의 스웨덴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고, 젠더 평등과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스웨덴 정부 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학문과 정책 양측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 **훌리오 아날도 가르시아 히메네즈(Julio Arnaldo Garcia Jimenez)**
스페인 보건사회복지평등부 정부자문위원
스페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성/가족 폭력 방지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디오도로스 파파도폴로스(Theodoros Papadopoulos) 영국 바스대학 교수**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의 그리스 위기 원인분석 및 EU통합을 위한 공공정책을 중점 연구분야로 활동 중이다.

붙임 2.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등록	10:00-10:30	등록
개회식	10:30-11:00	사회 :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환영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축사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토비요른 홀테 (Torbjørn Holthe 주한 노르웨이 대사) 헨릭 페르손(Henrik Persson 주한 스웨덴 공사)
세션 1		좌장 :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11:00-11:30	주제발표 1. 노르웨이 50년간의 여성복지정책 아니 홀(Ami Høle, 노르웨이 아동 평등 및 사회통합 가족평등부 국장)
	11:30-12:00	주제발표 2. 스웨덴 지난 50년간의 양성평등정책 아니타 뉘베리(Anita Nyberg,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
점심	12:00-13:30	Luncheon
세션 2	13:30-14:00	주제발표 3. 스페인의 성차별 폭력해결을 위한 제도적 현황 훌리오 아날도 가르시아 히메네즈 (Julio Arnaldo Garcia Jimenez, 스페인 보건평등부 정부자문위원)
	14:00-14:30	주제발표 4. 그리스 정치경제위기의 젠더적 측면 디오도로스 파파도폴로스 (Theodoros Papadopoulos, 영국 바스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휴식	14:30-14:50	Coffee Break
지정토론	14:50-16:00	지정토론1.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2.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지정토론3.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4. 이기순(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지정토론5.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휴식	16:00-16:20	Coffee Break
자유토론	16:20-17:00	사회 :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폐회	17:00-17:10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